

美, 곳곳서 부처님오신날 '거리축제'

C.A·조지아주 베트남 태국 라오스사원 봉축행사 준비 시 의회·카운티 운영위원회, 차량 통행 금지 등 행정지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웨스트민스터 시와 조지아 주의 하버삼 카운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베트남불교계와 태국불교계가 지역 불교계 사상 처음으로 '거리 불교 축제'를 개최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철저한 미국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계 불교도들이 이민 공동체 지역과 다른 주거 지역을 넘나들며 '거리 불교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앞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웨스트민스터 베트남계 불자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탐 니구엔(Tam Nguyen) 사원이 오는 5월 6일 제1회 봉축 행사를 개최한다. 400여 명의 스님들이 베트남 공동체 주거지역인 '리틀 사이공'의 볼사(Bolsa) 거리에 모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거리 행진을 실시한다. 웨스트민스터 시의 매그놀리아(Magnolia) 지역에서 버스하드(Bushard) 지역까지 스님과 불자들의 행진으로 진행되는 이번 봉축 행사는 베트남전쟁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골드스테인 자유공원(Goldstein Freedom Park)에서 추모 법회를 병행하는 것으로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탐 니구엔 사원 측은 "사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 마련하는 봉축행사인 만큼 지역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이를 위해 오펜지카운티 등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계 스님들을 초청, 현재 4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원 측은 "동참 스님들은 5월 6일 '거리 행진' 외에도 이틀간 머물며 웨스트민스터 베트남 불교계의 봉축 행사에 증명법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웨스트민스터 시 의회는 탐 니구엔 사원 측의 '거리 봉축 행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베트남 불교계의 요청을 수락했다.

"시 의회는 지역 사회 발전에 쏟은 베트남 불교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제한 웨스트민스터 시의 매기 라이스(Margie Rice) 시장은 "행진 당일 400여 명의 스님과 함께 2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웨스트민스터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번 베트남 불교계의 거리 행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일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등 행정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민스터 탐 니구엔 베트남 사원은 5월 6일 제1회 부처님오신날 봉축거리행진을 개최한다. 이날 4백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다.

적인 지원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의회 프랭크 프라이(Frank Fry) 의장은 "시 의회는 다양한 인종이 웨스트민스터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베트남 불교계의 거리 행진을 허가했다"며 "불교계의 첫 거리 봉축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일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 주 하버삼 카운티(Harbersham County)의 태국 불교계 사원도 카운티 운영위원회를 설득, 제1회 송크라 축제(Songkran Festival)를 개최한다.

온라인 매체 액세스노스(Access North GA, accessnorthga.com)는 17일 "하버삼 카운티 운영위원회가 최근 와트 라오 붓다 세타 담마 사원(Wat Lao Buddha Satttha Dhamma)의 '송크라 축제 개최 허가' 요청을 심의,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송크라 축제는 라오스, 태국, 크메르 등에서 매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열리는 불교 거리축제다. 와트 라오 붓다 세타 담마 사원이 올해 처음으로 거리 행사를 기획하고 카운티 운영위원회에 요청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있는 그대로의 티베트 보기 강조

세계의 불교학자(15)

도널드 로페즈 美 미시건대 교수



도널드 로페즈(Donald Lopez) 교수(美 미시건대 아시아언어문화학과)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철학·역사·문화적 연구를 중심으로 불교 전반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학자이다.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인도 대승불교와 티베트불교 분야 권위자로 서구에 영향력이 큰 불교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로페즈 교수는 버지니아대 종교학에서 제프리 홉킨스 교수의 지도 하에 인도·티베트불교학을 전공했다.

도널드 로페즈 교수의 박사논문 '자립 논증 중관학파의 연구'는 장가 쉼빠 돌제의 자립논증 중관학파에 대한 저술부분을 연구한 결과로 18세기 겐룩빠의 중관학파에 대한 이해를 소개한 것이다.

이후 도널드 로페즈 교수는 저서 <상그리라에 관한 이데, 티베트 불교와 서구>를 통해 서구의 티베트 불교 연구방식을 비판했다. 책을 통해 로페즈 교수는 티베트를 향한 서구사회의 환상 몇가지를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한국불자들이 티베트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 있어 눈길을 끈다.

첫째, '상그리라'라는 낙원에 대한 환상이다. 로널드 로페즈 교수는 "상그리라"는 제임스 힐튼이 1933년 저서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에서 장안해 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힐튼의 책은 프랭크 카프라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로페즈 교수는 "상그리"는 티베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며 '리'는 산길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제3의 눈(The Third Eye)> (나는 티베트의 라마승이었다)의 저자 롱 샴빠는 티베트에 가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어는 한마디도 못했던 씨릴 호스킨(Cyril Hoskin)이었다는 사실이다.

로널드 로페즈 교수는 "지나치게 신비화된 티베트를 잘 이해하려면 호스킨의 책 때문에 한 열성 독자는 치료용 송곳으로 자기 이마에 구멍까지 뚫었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티베트에서 많이 암송되는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인 '옴 마니 패드메 훔(Om mani padme hum)'의 해석이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로페즈 교수는 "'오! 연꽃 속의 보석이여!'는 잘못된 것이다. 이 진언의 올바른 해석은 '오! 보석 연꽃이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9세기 유럽의 산스크리트 학자들이 호격을 처격으로 잘못 읽어서, 보석(mani)이 연꽃(padme) 안에 있다고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티베트인들은 서양에서 유명

해지기 전까지 그들의 가장 유명한 종교 서적인 <사자의 서>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제목을 달고 서구에 소개된 최초의 책은 티베트어 소책자로 출간됐던 바르도되돌(중음계에서 들음을 통해 깨달음, bar do thos gro)이었다. 이 책은 미국의 대부호이며 신지주의자인 월터 헨츠에 의해 1920년대 번역됐다.

도널드 로페즈 교수는 "헨츠는 이 책에 자신의 주석을 첨가하여 장례의례에 쓰이던 이 책을 신지주의 서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티베트 불교를 지지하는 가

인도·티베트 불교분야 권위자

상그리라, 육자진언 등 오류 지적

'라마교' 티베트인이 경멸하는 단어

서구학자, 불교를 이성의 종교로 봄

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 '라마교'는 티베트인에게는 티베트를 경멸하는 단어라는 점이다.

19세기 말, 영국과 러시아는 티베트를 자신들의 제국에 귀속시키고 싶어 했다.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지를 그들에 의해 구원 받아야할, 문화가 결핍된 곳으로 묘사했다. 이때 티베트 역시 타락하고 악독한 사제들에 의해 지배받는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몰상식한 곳으로 묘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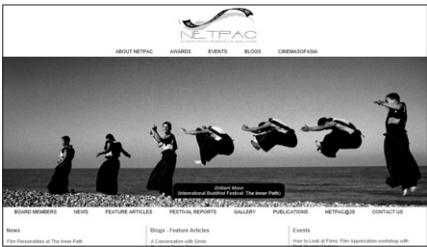
로페즈 교수는 "서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제들의 종교는 정동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라고 불릴 수도 없고, 따라서 불교라고 부르는 대신에 '라마교'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 학자들은 불교의 본모습을 깊은 철학과 제의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성적 자재의 종교라고 보았다. 사실 그러한 순수한 정동 불교는 아시아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인도 뉴델리서 제1회 불교영화제 개최

4월 27일~5월 4일...NETPAC 및 데비카 재단 공동 주최

인도에서 제1회 국제불교영화제가 개최된다. 뉴스 트랙 인디아(New Track India, www.newstrackindia.com)는 1일 "아시아 영화 진흥회(Network for Promotion of Asian Cinema, 이하 NETPAC)와 데비카 재단(Devika Foundation)이 뉴델리에서 4월 27일~5월 4일 불교 철학과 미학의 대중화를 위해 국제불교영화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제1회 인도불교영화제는 불교철학과 미학의 대중화를 위해 22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세계 불교의 흐름을 논의한다.

이번 영화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NETPAC의 아루나 바수데브(Aruna Vasudev) 대표와 데비카 재단의 수레쉬 진달(Suresh Jindal) 회장은 "불교 관련 조직들이 인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도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인도인들이 불교 철학과 미학의 세계를 탐구하고 나아가 종교의 다양성까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5월 4일까지 인도 문화 위원회 회관(Indian Council of Cultural)에서 개최되는 국제불교영화제는 총 22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 외에도 사진 전시회, 무대 공연 등과 함께 세계 불교계의 흐름을 조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부탄 아르렌타나 한국 스리랑카 중국 일본 등지에서 출품됐다"고 설명한 진달 회장은 "이번 영화제가 인도에서 불교 영화의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 불교유적 보존 관심

아바사힘-치나 불교유적 주목...이탈리아 유적 조사단 활동

고대 불교 유적이 분포한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의 아바사힘-치나(Abbasahib-Cheena) 유적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리뷴 지는 보도에서 "스와트 계곡을 따라 거대한 불교 유적이 발견되어 왔지만 개발이란 미명 아래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환경운동가들의 의견에 파키스탄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원전 3세기 번성했던 파키스탄 스와트계곡의 불교유적

스와트 계곡의 불교 유적을 조사중인 루카 올리비에리(Luca Olivieri) 박사는 "계곡 곳곳에서 불상을 비롯해 동전이나 도자기 등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내 암시장을 통해 밀거래되고 있고, 석조 건축물 잔해들은 인근 도심 개발의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스와트 계곡에서 이탈리아의 '파키스탄 유적 조사단'을 이끌고 있다.

"아바사힘-치나 불교 유적은 쿠산 제국의 후반기인 기원전 3세기에 번성했다"고 설명한 올리비에리는 "아바사힘-치나 불교 유적이 파키스탄 내 고고학과 관광학

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뒤이어 이탈리아 고고학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 정부의 관심도 조만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스와트 계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프잘 사흐(Afzal Shah·지역 사회 활동가) 박사는 "계곡을 중심으로 최근 토지 개발업자 등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 향후 유적 보존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키스탄 정부가 스와트 계곡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4월 30일까지
- ◆ 개강일시 :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